



정년 앞두고 시인·소설가 꿈꾸는
달팽이 박사

《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》낸 생물학자 권오길

강원대학교 생물학과 권오길(64) 교수의 첫 책 《꿈꾸는 달팽이》가 나온 지 10년이 됐다. 최근 출간된 《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》는 그의 아홉 번째 생물 에세이 집으로 도감 등 다른 전공서적과 합한다면 1994년 이후 해마다 한 권 이상 책을 내온 셈이다. 현재 그는 미생물의 세계를 다룬 《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》(가제)을 집필중이다. 《꿈꾸는 달팽이》를 비롯해 《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》까지 모두 10권이 되면 2005년 8월 정년퇴임 전에 전집을 낼 계획이다.

권 교수로서는 이 전집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. 그는 국내 학자로서는 드물게 패류貝類를 전공했다.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패류연구는 1956년 이병돈 선생의 ‘한국 패류 목록’ 발표가 효시고 이후 은사인 고 최기철 선생과 최신석 선생의 뒤를 이어 그가 패류를 주제로 논문을 썼다. 특히 달팽이처럼 땅에 사는 패류 연구는 1979년 권 교수가 발표한 《제주의 육산패 연구》가 처음이다. 이후 스테디셀러인 《꿈꾸는 달팽이》 덕분에 독자들에게 ‘달팽이 박사’로 알

려진 권 교수는 꾸준히 인간 삶을 이해하는 창으로서 생물을 이야기해 왔다.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쓴 책들은 단순히 생물교양서가 아니라 ‘죽살이’ ‘다살이’ ‘애옥살이’ 등과 같이 인간 삶이 담긴 단편소설집이다.

“똑같은 두 개의 호박을 키우더라도 그냥 둔 호박보다는 사람이 있을 따먹은 호박이 훨씬 건강하게 자랍니다. 여기까지가 생물학입니다. 하지만 이 사실에서 시인이 그 삶의 주체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. 생의 이면에 숨겨진 삶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점에서 시인과 과학자는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. 제자들에게도 항상 시심을

않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.”

권 교수 글의 특징은 호방한 그의 성격처럼 중형무진 거침이 없다는 것이다. 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30년 교직생활 그리고 달팽이 채집을 통해 얻은 체험이 응축된 《꿈꾸는 달팽이》는 집필하는 데 불과 2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.

“《한국동식물도감 연체동물편 1》을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. 너무 무리한 탓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서울사대부고 다닐 때 가르쳤던 이원중이라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.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대뜸 한다는 소리가 책을 내자는 겁니다. ‘못 쓴다, 못 쓴다’ 하고 버티다 마지못해 ‘그럼 한번 써보자’ 했죠.”

당시까지만 해도 권 교수는 입담 좋고 책 많이 읽는 생물학자로서만 자족했다. 산으로 섬으로 달팽이만 찾으러 다닐 줄 알았지 산문을 써본 적은 없었다. 제자의 강권에 마지못해 펜을 집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글이 나왔다. 30년간 온갖 고생 다해가며 한 길을 파다보니 저절로 글이 되더라는 것이다.

가장 최근작인 《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》는 여러 개 주제를 묶어 쓴 전작들에서 탈피해 하나의 주제를 잡고 쓴 글이다. 류시화 시인의 시 〈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〉에 나오는 비목어에서부터 부성애라면 가시고기에 되지 않는 블루길, 동물행동학 연구 대상으로 틴버겐Niko Tinbergen 박사에게 노벨상을 안긴 가시고기까지 권 교수 특유의 입담과 해박한 지식이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. 이 역시 권 교수의 정신과 육성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책이다.

권 교수는 스스로 자신은 글 쓰는 사람이기 이전에 생물학자라고 말한다. 하지만 옆에서 보기에 그는 생물학자나 글쟁이에 앞서 타고난 ‘선생님’이다.

“평생 잊지 못할 3일간의 수업이었습니다. 정말 알차고 넘 재미있어서 1시간 40분의 수업이 마치 5분밖에 하지 않은 듯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.”

권 교수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느 수강생이 남긴 9,417번째 글이다. 홈페이지가 1999년 12월에 문을 열었고 권 교수가 대부분의 글에 리플을 남긴 것을 감안한다면 3년간 4,700명이 넘는 제자와 독자들이 글을 남긴 셈이다. 중·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강단에 선 게 40년이니 그동안 제자만 해도 3만 명이 넘는다.

“스승의 날에는 근처에 있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학교에 오라고 합니다. 안 오면 전화를 해서 혼을 내지요.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강요된 효도 효라고 생각합니다.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스로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의 제자들 역시 스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.”

스승으로서 권 교수의 강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. 담배 끊으려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하고, 안경 안 쓴 학생들에게는 ‘당장 가 눈을 망쳐와라’고 말한다. 하지만 정말로 담배 피우고 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제자들이 더 잘 안다. 그의 진심은 더 고민하고 책을 더 많이 읽으라는 것이다. 어떻게 학생이 눈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, 어떻게 세상을 어깨에 짊어진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.

이러한 그의 강요가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유는 이를 스스로 실천해 왔을

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 제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. 권 교수는 대한민국과학문화회상으로 받은 1,000만 원, 강원도 문화상 학술상 300만 원, 책 인세 3,000여만 원 등 책과 관련해 받은 돈을 모두 학교에 기부했다.

“전 항상 강원대학교 교수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. 제가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강원대학교의 교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.”

권 교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매달리지 않을 작정이다. 패류학회 회장도 마다했고 전공과 관련된 메일이 오면 제자들에게 ‘전달’한다.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큰술 밑에 작은 술 못자란다는 말처럼 그가 전공을 가지고 나대면 제자들이 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. 대신 권 교수는 평생 버릴 수 없는 새로운 전공이 생겼다. 바로 ‘글’이라는 전공이다. 권 교수는 10년 가까이 생물채집과 더불어 글채집을 해왔다. 종강할 때 항상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〈눈을 끄는 단어 및 문장〉이라는 제목의 노트에는 그동안 그가 채집한 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. 권 교수는 정년퇴임을 하면 생물을 소재로 진짜 시와 소설을 써볼 생각이다. 그에게는 이미 시심이 있고 모국어에 대한 애정이 있다. 게다가 생물세계에 대한 지식이 일반 시인들이나 소설가들보다 훨씬 풍부하므로 그 누구보다 경쟁력을 갖춘 예비 작가라고 할 수 있다. **추천**

취재 신동섭 기자 · 사진 김태경 기자



《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》
권오길 지음 | 지성사 | 244쪽 | 값 12,000원